

'수뇌부는 썩었지만 기층당원은 좌익적이다'

〇 〇



알려진 것처럼, 부르주아 사회는 재산 없고, 불만을 품은, 속아 넘어간 대중이 밑바닥에 있고, 위에는 만족스러운 사기꾼들이 머물도록 지어졌다. 모든 부르주아 정당이 진짜 당이라면, 즉 상당수의 대중을 포용하고 있다면, 똑같은 원칙 위에 세워졌을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착취자, 사기꾼, 독재자는 소수를 이룬다. 따라서 모든 자본가 정당은 그 내적 관계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부르주아 사회 전체의 관계를 재현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모든 대중적 부르주아 정당의 하층은 상층보다 더 민주적이고 한층 더 '좌익적'이다. 이는 독일중앙당, 프랑스급진당, 특히 사회민주주의에 들어맞는다. 이런 이유로 '좌익적인' 국민당 일반당원, '압도적 다수', '10분의 9' 등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층은 매우 고지식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스탈린, 부하린 등이 항상 불평을 나타낸 것이다. 조직적 수단, 지시, 회람장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일시적인, 불쾌한 오해에 대해 이들은 자신들의 기괴한 불평을 표출하나 이것은 실제로는 특히 혁명적 시대에 부르주아 정당의 핵심적이고 기본적 특징이다.

이런 관점에서 온갖 기회주의의 블록 일반—영국과 중국 모두에서—을 옹호하는 강령 초안 작성자들의 기본적 주장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들에 따르면, 상층과의 우애적 교제는 일반당원을 위해 배타적으로 수행된다. 알려진 것처럼, 반대파는 국민당으로부터 당의 철수를 주장했다.

부하린은 이렇게 말한다.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국민당 지도자들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인가? 국민당 대중은 어떠한가, 이들은 단지 '짐승 같은 놈들'일 뿐인가? 언제부터 대중조직에 대한 태도가 "최고" 수뇌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결정되었는가!"(중국 혁명의 현 상황)

이러한 주장의 존재야말로 혁명정당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부하린은 이렇게 묻는다: '국민당 대중은 어떠한가, 이들은 단지 짐승 같은 놈들일 뿐인가?' 물론 이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다. 어떤 부르주아 정당의 대중도 늘 짐승 같은 놈들이다. 비록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중은 짐승 같은 놈들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동자 농민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본가계급을 감추면서 대중을 자본가계급의 지배로 내모는 것을 금지시킨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동자당을 부르주아 정당에 종속시키는 것을 금지시킨 이유이다. 거꾸로 우리는 전 단계에 걸쳐 노동자당을 부르주아 정당에 대비시켜야 한다. 부하린이 부차적, 우발적, 일시적인 것처럼, 역설적으로 말하는 국민당의 '최고' 수뇌부는 실제로 그 사회적 본질에서 국민당의 정수이다. 물론 자본가계급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수뇌부'에만 속한다. 그러나 이 수뇌부는 자금력, 판단력, 결합력이 강하다. 언제든지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에 의지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당 내 지도부와 밀접히 결합한 실제 정치력과 군사력에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수뇌부가 파업에 반대하는 법률에 서명하고, 농민 봉기를 질식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을 어두운 구석으로 떠밀고, 기껏해야 소부르주아 손문주의가 마르크스주의에 우선한다는 맹세를 강요한 당의 3분의 1만을 인정했다. 이 수뇌부가 고르고 갑옷을 입힌 일반당원은 장군, 매관 자본가, 제국주의자들이 우익의 지주역할을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처럼 '좌익'의 지주역할을 했다. 국민당을 부르주아 정당이 아니라 대중투쟁의 독립적 무대로 여기는 것은 진짜 지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감추기 위해서 좌익 일반당원의 10분의 9에 대해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뇌부의 힘과 권력을 더해주고, 더 광범한 대중을 '짐승 같은 놈들'로 개조시키려는 수뇌부를 거들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상해쿠데타를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 계급 당이라는 반동적 관념에 기초를 두면서 스탈린과 부하린은 중국의 권력이 국민당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좌익'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국민당의 다수파를 획득함으로써 나라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국민당 대회에서 보통선거를 통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서 노동자계급으로 권력이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르주아 정당에서 ... 더 관계적이고 이상적인 '당내 민주주의'의 이상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말로 군대, 관료집단, 언론, 자본이 모두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이 지배정당의 실권을 잡고 있다. 부르주아 '수뇌부'는 감히 군대, 관료집단, 언론, 자본에 반대하지 않는 한에서만 좌익(그리고 이런 부류의 좌익)의 '10분의 9'를 용인하거나 용인했다. 이런 강력한 수단을 통해 부르주아 수뇌부는 이른바 '좌익'당원의 10분의 9뿐만 아니라 대중전체도 계속 종속시켰다. 이런 계급블록이론, 국민당이 노동자 농민의 당이라는 이론은 자본가계급을 최상으로 도와준다. 자본가계급이 나중에 대중과 적대적으로 충돌하여 이들을 사살하게 되면, 진정한 두 세력—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사이의 이 충돌에서 유명한 10분의 9는 그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민주적 날조는 피비린내 나는 계급투쟁의 현실에 직면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것이 '동방을 위한 노동자 농민의 두 계급 당'의 진짜, 그리고 유일무이한 정치적 메커니즘이다. 다른 것은 없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레프 트로츠키, <레닌 이후의 제3인터내셔널>